



## 광주서 즐기는 독립영화 소풍 '인디 피크닉'

서울독립영화제 작품 광주 상영  
내일~16일 광주극장  
다큐·극영화 등 장·단편 15편

서울독립영화제는 한해 우리나라 독립영화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행사다. 1년간 쏟아져 나온 독립영화를 결산하는 축제의 자리로 독특한 개성의 수상작들은 한국 영화계를 풍성하게 한다.

특히 서울독립영화제는 작품 상영을 서울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순회 상영회 '인디 피크닉'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인디 피크닉' 행

사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대상 수상작을 비롯해 장·단편 15편을 만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극영화 등 장르도 다양하다.

장편부문에는 청년 평크신의 발산하는 치열한 일상과 저항을 최대로 느낄 수 있는 다큐멘터리 '노후 대책 없다'가 상영된다. 서울 펑크 밴드들이 도쿄에서 개최된 하트코어 펑크 음악 페스티벌에 초대돼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또 다른 장편 '분장'은 지난해 '새로운 선택'을 수상한 작품으로 무명의 연극 배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소수자 연극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를 그리고 있다. 그밖에 부당한 노동에 맞서 알바노조를 결성하고 싸우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가련이들'이 준비돼 있다.

단편 부문은 '꿈의 대화', '시대를 비행하는 카메라' 등 주제를 정해 색선별로 상영한다. '꿈의 대화'(86분·15세) 색선에서는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여러 영화제를 석권한 '여름밤', '복상대회를 앞둔 주인공이 월급을 받지 못한 친구의 일에 끼어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플라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가 상영된다.

'시대를 비행하는 카메라'(92분·15세) 색선에서는 낯선 부서로 발령받은 회사원의 이야기를 그린 '업무시간', 인터넷 사이트 베스트 글을 노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난시대', 세월호 참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416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자극'이 관객을 만난다.

그밖에 '혼돈의 밤, 소동의 기억'(80분·18세) 색선에서는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애니메이션 '무저갱'을 비롯해 '순환하는 밤', '빈방', '우리 아빠 환갑잔치', '엠부배깅' 등 5편이 상영된다.

14일 오후 7시20분에는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단편 '플라이' 상영 후 임연정 감독, 이혜미 배우의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시간표는 홈페이지 (cafe.naver.com/cinemawangju)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1992년 10월 5일 월요일 저녁 6시45분, 뉴욕링컨센터 에이버리 피셔홀(2800석). 평소 공연시간 보다 1시간이나 일찍 시작되는 음악회를 감상하기 위해 정장차림의 관객 25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인근 맨하튼의 사무실에서 '칼퇴근'하자마자 링컨센터의 '깜짝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곧장 '탈려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발길을 끌어 들인 건 '러시아워 콘서트'(Rush hour concert). 링컨센터의 상주단체인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뉴욕필)가 관객창출의 일환으로 공연계의 관행(?)을 깬 파격적인 음악회였다.

### 퇴근길 음악회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관객들을 겨냥한 대부분의 음악회는 밤 8시에 개최됐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직장인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악명높은 맨하튼의 교통체증을 뚫고 저녁식사까지 해결하려면 공연시간을 맞추기가 벅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엔 평일 저녁에 열리는 음악회는 '그림의 떡'이었다.

1991년 뉴욕필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독일 출신의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Kurt Masur·1927~2015)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했다. 혼잡한 도로 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콘서트를 관람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아이디어였다. 콘서트 티켓 역시 정규공연보다 30~40% 저렴한 5~6만 원대의 착한 가격으로 책정했다.

쿠르트 마주어의 새로운 실험은 매진사례로 이어지는 대박을 냈다. '러시아워 콘서트'에 입문한 관객들은 음악의 매력에 빠져 뉴욕필의 단골 고객이 됐고 일부는 정기 후원자로 재정에 보탬을 주는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이후 링컨센터의 '러시아워 콘서트'는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 심포니야의 '러시아워 콘서트', 버밍엄 심포니홀의 '러시아워 블루스' 등 전 세계 아트센터의 벤치마킹사례가 됐다.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도 맨하튼과 마찬가지로 상습 정체구간이다. 퇴근시간대에는 차량 진행속도가 시속 10km 이하로 떨어질 만큼 혼잡하다. 테헤란로에 등지를 튼 LG아트센터는 이런 장소성을 활용해 수년째 '러시아워 콘서트'(저녁 7시)를 열어 인기를 얻고 있다. 입장료 2만원만 내면 약 한시간 동안 자동차 운

전적 대신 객석에서 변장한 일상에 벗어난 제즈나 록밴드,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공연장을 나설때쯤이면 딱 막혔던 도로도 뚫려버린다.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 할 필요는 없다. 광주에서도 12일부터 6월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로비에서 유사한 컨셉의 'ACC 뮤직라운지'(매주 수요일·저녁 7시30분)가 무료로 진행된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로비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열린 콘서트다.

올해 첫번째 무대는 재즈기타리스트로 잘 알려진 '박윤우 트리오'의 감미로운 기타선율이 흐르는 재즈 공연이다. 특히 문화전당 인근의 직장인들에게는 일상의 피로도 풀어주고 교통체증 스트레스도 날려주는 '마법의 시간'이 될 듯하다. 이제 매주 수요일 밤에는 문화전당에서 '퇴근길 음악회'를 즐기는 삶의 여유를 누리자.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 '바로크 솔리스텐' 피아니스트 지해나와 협연 무대



리더 박신영 피아노 지해나 바이올린 홍의정 비올라 양신애

#### 14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클래식 앙상블 '바로크 솔리스텐'은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연주 그룹이다. 리더를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신영(광주시립교향악단 1바이올린 상임수석)을 비롯해 바이올린의 김수연과 홍의정, 비올라의 양신애, 첼리스트 이후성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창단 후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온 바로크 솔리스텐이 이번에는 피아니스트 지해나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1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계원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지 씨는 노스텍사스 대학교 피아노 반주 전공 과정을 수료했다. 개인 연주회와 함께 많은 솔리스트들과 공연을 펼쳐왔으며 현재 대전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 반주 강사로 출강중이다.

바로크 솔리스텐이 이번에 들려주는 곡은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5중주곡 G단조, 작품번호 57',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곡 A장조, 작품번호 81'이다. 문의 010-8999-31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 '책방 음악회'



#### 15일 무료공연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에서 '책방 음악회' 4월 행사가 오는 15일 오후 4시 열린다.

'어느 꽃이 예쁘냐고 묻지 마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김현옥씨가 예술감독과 피아노를 맡았다.

이상철씨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홍예선·전주은씨가 피아노로 '작은 세상' 등을 연주하며 해금 연주자 우문형씨가 '하늘빛

그리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선사한다. 또 소프라노 박경숙씨가 '얼굴', '어느 날 꿈속에서'를 들려주며 클래식 기타 연주자 서만제씨가 '귀여운 소년'을 연주한다.

책방 운영자문위원회가 주최하고 달빛오빛세이가 주관하는 책방음악회는 아티스트들의 재능기부로 매월 세번째 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무료 공연. 문의 062-514-89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통문화관 '남도전통장 담그기' 체험생 모집

전통문화관 남도리음식장과 생이 체험한 된장·간장을 직접 가져가는 나눔의 시간(11월) 등 총 3회 진행하는 '남도전통장 담그기' 체험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최영자(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리음식장) 음식명인이 강사로 참여한다. 최 명인의 시연과 지도로 '장 담그기'(22일), '된장 가르기'(6월), '수강

생이 체험한 된장·간장을 직접 가져가는 나눔의 시간(11월) 등 총 3회 진행하는 '남도전통장 담그기' 체험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최영자(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리음식장) 음식명인이 강사로 참여한다. 최 명인의 시연과 지도로 '장 담그기'(22일), '된장 가르기'(6월), '수강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맛의향연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월급착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